



하루에 하나

2026.7.1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49.95원 (+4.75원)

KOSPI

8,476.48 (+81.83, +0.97%)

KOSDAQ

916.18(-4.39, -0.48%)

국고채 10년 금리

4.091(-0.05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실전 퀀트(Quant MP) 하반기 초입, 빈집털이 계절성 [이경수]

월간 하나채권 [7월] 고유가 다음은 고금리 테스트 [박준우]

주간 강테마 반도체 기판: 넓고 높아질수록 부족해진다 [강운형]

기업분석

LG생활건강 중장기 성장 여력 확보가 관건 [박종대]

GS건설 데이터센터로 강력 매수 [김승준]

삼성전기 명백한 공급자 우위 시장 [김민경]

NAVER 평이한 실적, 결국 트리거는 신사업 [이준호]

산업분석

유틸리티 GW급 AI DC 구축의 긍정적 효과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미국 우주 산업 로켓랩의 이리듬 인수, 우주 전략 자산의 가치 재평가 [김재임]

중국 이차전지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업화의 시작 [송예지]

머스크 (MAERSKB.DC) 2026년 가이드스 상향: 컨테이너선 실적 눈높이 높여야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화오션, 삼양식품, 대덕전자, 세방전지,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스메카코리아

2026년 7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전 퀀트(Quant MP)

하반기 초입, 빈집털이 계절성

7월, S7 말고 '빈집 실적주'도 있다

- 글로벌 실적, AI 생태계 관련 기업 위주의 실적모멘텀 지속 유지 중(실적 상향 주요 종목: 마이크론, HP, 샌디스크, 프리포트맥모란, 델, 누커, 오라클, 브로드컴, 코어위브 등)
-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유가 및 금리 하락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한국 반도체 역시 글로벌 실적 상향의 핵심 역할로 중장기 안정적 성과 기대
-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설정 규모 증가 속도 다소 둔화, 코스피 지수의 개인 코스피 상승 기여도 역시 5월 피크
-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높아진 한국 주식 비중에 따른 매도 압박을 받는 외인과 연기금 수급 구도를 감안할 때, 2분기 호실적 발표 전후로 일시적 반도체의 수급 공백 우려
-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S.W. vs H.W. 구도에서 다소 S.W.에 유리한 구도, 기존 금리 상승과 H.W. 프리미엄 연동은 '퀄리티' 컨셉과 유관
- 또한, 7월 로테이션 장세 계절성에 유의, 상반기 성과 확정 등으로 인한 기관 3개월 순매수 상위(찬집) 및 추가 과열(3개월) 종목군의 성과 하락 경향
- 실적모멘텀 팩터 역시 6월대비 소폭 낮아질 가능성, 상반기(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호실적 종목군의 수익 확정 수요 급증 시기, 미국 시장에서도 해당 계절성 뚜렷한 편
- 다만, 실적모멘텀 팩터는 8월부터 재차 상승 부각, 계절성 측면에서 실적모멘텀 팩터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봄
- 최근 달러인덱스 상승도 실적모멘텀 팩터에게 우호적(상관성 측면)
- 결국, '기관 과매도 + 추가 낙폭과대 + 실적 개선' 조합이 7월 핵심 아이디어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상위 종목군은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파두, LG씨엔에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 삼성에스디에스, 한미약품, OCI홀딩스, LG이노텍, LG전자, 한화, LG, 한화시스템, 주성엔지니어링, 한화엔진, 신세계 등
- 참고로 반도체 투톱은 기관 순매수 강도(시총대비 순매수금액)가 3개월 기준 +0.15%로 찬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 수준임은 분명
- 대형주 중에서 기관 수급 빈집은 삼성전기와 현대차,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셀트리온, 삼성SDI, LS ELECTRIC 정도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2026년 6월 30일 | Global Macro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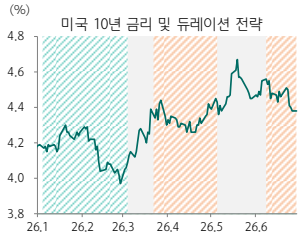
Fixed Income

국채 투자이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	■
한국	■	■	■

주: 6/8 기준. ●는 직전(6/4) 전망

■ 적극축소 □ 축소 ● 중립 ▲ 확대 ■ 적극확대



월간 하나채권

[7월] 고유가 다음은 고금리 테스트

- 고유가 충격을 잘 버틴 글로벌 경제. 다음 시험대는 고금리 충격.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에 성장세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금리 상승 리스크는 지속. 국채 투자이견 '축소' 유지
- 미국: 고용 회복 추세 고려 시 긴축 리스크 불가피. 이미 국채 금리는 유가 하락을 반영
- 한국: 임금 상승률 물가 압력 우려는 이른 시점. 그럼에도 인상 사이클 초반부는 조심

Monthly Viewpoint: 고유가 다음은 고금리 테스트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유가 충격 속 양호한 성장세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 장기금리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미국 경제는 고유가라는 시험대는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제/금융시장이 고금리 환경을 얼마나 잘 버틸지로 이동하고 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에 따르면, 유가 상승 그 자체보다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 긴축이 침체를 야기한다. 주거용 투자 위축 등 고금리(긴축) 충격의 여파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다만 연준의 긴축 강도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에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은 미국의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고유가와 고금리 충격을 잘 견딜수록 금리는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국채 투자이견을 축소로 유지한다.

미국: 성장이 버티면 금리도 버틴다

- 1) 매크로 - 고용 회복의 지속성이 중요
- 2) 통화정책 -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긴축 기조 불가피
- 3) 채권시장 - 이미 유가 안정은 대부분 반영. 추가 하락보다 반등에 대비

한국: 유가 하락을 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 1) 매크로 -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기엔 이른 시점
- 2) 통화정책 - 유가 하락에도 한은의 긴축 기조는 오히려 강화
- 3) 채권시장 - 인상 사이클 초반부는 조심해야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 1) 국채 투자이견 - 미국 '축소' (6/8 제시), 한국 '축소' (5/28 제시) 유지
- 2) 미국 12월 인상, 한국 7, 10월 인상. 연말 미국, 한국 10년 금리 각 4.60%, 4.35% 전망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opark@hanafn.com

2026년 7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주간 강테마(신고가로 보는 글로벌 테마)

반도체 기판: 넓고 높아질수록 부족해진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테마 리뷰: 경기 방어주_기술주와 시소 타기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 보인 가운데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칩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와 반기 리밸런싱 수급 부담으로 기술주 약세가 지속됐다. 경기 방어주 테마 평균 수익률 +5.23%로 AI 테마(-0.59%)와 한미일 증시 평균 수익률(-5.9%)을 크게 상회했다.

주요 신고가 업종은 미국 건강관리, 금융(손보), 일본 필수소비재(음식료)이다. 미국 건강관리 업종이 M&A 발표, 치료제 승인 소식에 경기 방어주 중에서 가장 아웃퍼폼했다. AbbVie(+17%)는 아포지 테라퓨틱스를 109억 달러에 인수하며 면역질환 파이프라인 강화 기대감에 상승했다. 금융주는 손해보험주가 보험료 인상, 자연재해 손실 감소, 언더라이팅 마진 개선 기대감에 상승했다. 일본 맥주 기업인 Sapporo(+14%)와 Kirin(+3%)은 주세 개정에 따른 가격 조정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Sapporo는 부동산 사업 매각 추진 후 주류 사업 집중 전략이 부각되며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간 테마 전망: 기판_시가 키운 Q, 대면적·고다층이 키운 병목

메모리, MLCC에 이어 반도체 기판을 쇼티지 테마로 제시한다. 증시 변동성 확대로 지수가 등락하는 가운데 메모리, MLCC, 반도체 기판 종목들이 신고가를 재차 돌파하며 여전한 주도 테마임을 확인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칩과 PCB를 연결하는 고성능 중간 기판으로, AI 서버 수요 확대로 ABF 소재 기반 FC-BGA 기판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차세대 AI GPU로 갈수록 HBM 탑재량과 전력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AI 서버용 기판은 일반 기판 대비 면적이 4배, 층수도 20층 수준으로 대면적화, 고다층화 특성을 갖게 됐다. 엔비디아 GPU 출하량 증가(23년 376만개→26년(E) 1,000만개)와 랙 스케일 구조 전환으로 GPU 탑재량이 8개에서 72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기판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층수 증가, 미세화, 공정 반복 확대로 생산 부하와 수율 부담이 커져 증설이 단순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워 쇼티지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AI 서버용 기판 수요 확대는 이비덴 영업이익 전망 상향, 유니마이크론 월매출 사상 최고치, 삼성전기 고부가 FC-BGA 비중 확대 계획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3사의 기판 매출액 성장률이 25년 +14.8%에서 26년 +43.8%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비덴은 FY2026~2028년 5,000억엔, 유니마이크론은 FY2026 CapEx 340억 대만달러, 삼성전기는 1.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CapEx에도 대면적화와 고다층화 등으로 생산 부하가 함께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alyst 강윤형 kangyh@hanafn.com

2026년 07월 0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30) 22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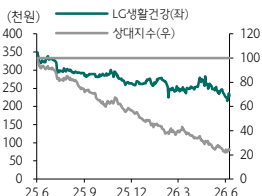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8,476.48
52주 최고/최저(원)	339,000/215,000
시가총액(십억원)	3,436.9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4,975.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0
외국인지분율(%)	28.56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1인	35.50
Silchester International Investors LLP	7.3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279	6,496
영업이익(십억원)	334	400
순이익(십억원)	197	247
EPS(원)	10,830	14,024
BPS(원)	334,600	346,433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186	6,805	6,812	6,355
영업이익	711	487	459	171
세전이익	418	276	317	(63)
순이익	237	143	189	(100)
EPS	13,352	8,057	10,675	(5,688)
증감율	(72.0)	(39.7)	32.5	적전
PER	54.1	44.1	28.6	(45.4)
PBR	2.4	1.1	1.0	0.8
EV/EBITDA	12.1	7.4	6.3	8.2
ROE	4.4	2.6	3.4	(1.8)
BPS	305,350	310,665	318,161	315,868
DPS	4,000	3,500	3,500	2,00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LG생활건강 (051900)

증장기 성장 여력 확보가 관건

2분기 연결 영업이익 883억원(YoY 61%) 추정

2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1조 5,993억원, 영업이익은 883억원(YoY 61%)으로 추정한다. 전반적인 매출 부진과 수익성 저하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낮은 베이스 영향 YoY 증익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면세점 매출은 1분기와 유사한 86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면세점 매출은 여전히 YoY 감소하지만, 북미 매출이 YoY 30% 고신장하면서 화장품 사업 부문 매출이 5개 분기만에 YoY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건비/매장 축소 영향 면세점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이다. 중국 사업은 마케팅비 증가로 다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도우인 중심 KOL(Key Opinion Leader)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생활용품 사업 부문은 홈플러스 영업 종료에 따라 분기별로 100억원 내외 매출 감소 영향이 불가피해보이며, 음료 사업 부문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 원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 진입

하반기에는 면세점 물량 조절이 마무리되면서 면세점 매출도 YoY (+)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사업은 호조세다. 2분기에도 YoY 30% 이상 고신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닥터그루트가 매출 성장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전년도 하반기 코스트코에 이어 세포라 입점(8월 예상) 등으로 매출 증가폭을 더 확대할 듯하다. 이외 빌리프/더페이스샵/CNP 등 핵심 인하우스 브랜드들이 온라인 중점에서 오프라인 확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M&A보다는 10개 글로벌/국내 주력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증장기 성장 여력 확보 관건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수혜는 제한적이다. 백화점 산업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크게 상승했지만, 주로 명품/패션 카테고리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면세점 채널은 개별 여행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도매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매출 성장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구나, LG생활건강은 더후에 대해 물량 조절을 지속하고 있다. 닥터그루트/빌리프 등 인하우스 브랜드 몇개로 6조원이 넘는 전체 사업 규모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바닥은 지난 것이다. 다만, 2021년 매출 8조원, 영업이익 1.3조원 수준을 다시 도달하기 위한 증장기 성장 여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게 주가 반등의 폭을 가능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26년 7월 1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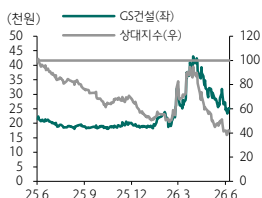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52,000원(상향)
현재주가(6.30) 25,1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476.48
52주 최고/최저(원)	43,100/18,070
시가총액(십억원)	2,148.1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85,581.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58.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0.5
외국인지분율(%)	18.39
주요주주 지분율(%)	
야항수 외 14인	23.02
국민연금공단	6.9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1,189.6	11,882.2
영업이익(십억원)	473.4	601.8
순이익(십억원)	261.3	429.7
EPS(원)	2,710	4,477
BPS(원)	58,799	62,716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2,863.8	12,450.3	10,898.9	11,782.1
영업이익	286.0	437.8	436.2	533.8
세전이익	441.5	147.3	407.7	505.4
순이익	245.6	93.5	225.0	333.8
EPS	2,869	1,093	2,629	3,901
증감율	폭전	(61.90)	140.53	48.38
PER	6.05	18.02	9.60	6.47
PBR	0.33	0.35	0.43	0.41
EV/EBITDA	11.23	8.00	10.09	8.88
ROE	5.63	2.03	4.61	6.52
BPS	52,003	56,430	58,564	61,968
DPS	300	500	500	5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GS건설 (006360)**데이터센터로 강력 매수****GS그룹의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수주 기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AI데이터센터에 GS그룹의 2.4GW 투자 발표 내용이 있었다. GS그룹은 동해시 북평제2산업단지에 2028년까지 1.2GW(1단계), 2029년까지 1.2GW(2단계) 등 총 2.4GW의 AI데이터센터를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 GS그룹은 (주)GS 산하에 자회사 GS AI인프라를 설립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표다. 동해에 GS E&R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1.2GW, 가동률 30% 수준)가 있어 시너지 또한 기대된다. 그룹 계열사인 GS건설, 자이C&A(GS건설 자회사) 등은 데이터센터 경험이 있어, 계열사 수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데이터센터 수주를 통해 매출 도약 전망

현재 GS건설 및 연결자회사 자이C&A가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는 총 3건(고양, 파주, 세종)이며, 올해 중 추가 2건(일산, 부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는 MW당 90~100억원 규모로 수주했으며, 공사기간은 약 2년이다. 고양 데이터센터의 경우 20WM, 약 1,800억원에 수주했으며, 2024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10월 완공 목표다. 파주의 경우 50MW, 약 3,200억원에 수주했으며,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완공 목표다. 공사기간이 다른 플랜트나 발전소에 비해 짧아, 매출 속도가 빠르다. 올해 하반기 총 120MW가 예정되어 있으며, 약 1조원 가까이 수주가 예상된다. 이후 동해 AI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1.2GW, 10조원 이상의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52,000원으로 상향

GS건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45,000원에서 52,000원으로 15.6%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20배를 적용했다(PBR 0.9배 수준). GS건설은 데이터센터 레퍼런스를 착실하게 쌓아왔다. 2010년대부터 LG유플러스, 하나금융그룹, 네이버(춘천, 세종) 등 1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지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지분을 투자해 개발 및 운영하는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할 데이터센터가 5개가 있으며, 동해프로젝트를 통해 GW단위의 데이터센터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다. 10조원 이상의 수주를 2~3년 내 매출로 기여 가능하기에, 전사 매출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 여기에 건설 경기 사이클까지 겹치게 되었을 때, 현 주가수준은 매우 싸다고 느껴질 것이다. 국내 AI 데이터센터 기대감에 강력 매수를 추천한다.

2026년 7월 1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목표주가(12M) 3,000,000원(상향)
현재주가(6.30) 2,18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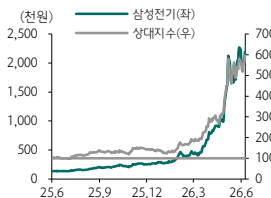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8,476.48
52주 최고/최저(원)	2,270,000/134,500
시가총액(십억원)	163,131.0
시가총액비중(%)	2.35
발행주식수(천주)	74,693.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36.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19.5
외국인지분율(%)	39.40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4인	23.78
국민연금공단	9.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412.2	16,201.3
영업이익(십억원)	1,591.3	2,752.8
순이익(십억원)	1,317.5	2,255.3
EPS(원)	16,559	28,473
BPS(원)	142,321	169,366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294.1	11,314.5	13,427.4	16,078.3
영업이익	735.0	913.3	1,714.0	3,391.8
세전이익	797.3	895.8	1,810.9	3,439.0
순이익	679.1	706.1	1,428.3	2,723.7
EPS	8,752	9,099	18,406	35,099
증감율	60.59	3.96	102.29	90.69
PER	14.15	28.03	118.66	62.22
PBR	1.08	2.04	15.21	12.38
EV/EBITDA	5.87	10.44	62.12	38.01
ROE	8.16	7.70	13.91	22.20
BPS	115,152	124,850	143,560	176,369
DPS	1,800	2,350	2,350	2,35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삼성전기 (009150)

명백한 공급자 우위 시장

목표주가 300만원으로 상향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8년 예상 EPS 49,950원에 Target PER 60.73배(Ibiden 28년 예상 PER에 40% 프리미엄 적용)를 적용해 산출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MLCC 및 FCBGA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28년까지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MLCC 업체들의 AI 서버용 Capa 확대는 글로벌 전체 생산능력 축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데이터센터향 초소형 고용량 MLCC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는 글로벌 탭티어 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FCBGA 또한 제한적인 공급 환경에서 공급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서버향 매출 비중 확대 및 전 제품군의 평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최근 실리콘 캐패시터, 수동소자가 내장된 임베디드 FCBGA 수요 증가로 고수익성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IT 부품사 대비 프리미엄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고부가 MLCC 수급 우려 확대중

삼성전기는 금일 약 4,500억원 규모의 MLCC 단일 판매/공급계약을 공시했다. 이는 2027년 1년간 AI 데이터센터향 초소형·고용량 MLCC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파악된다. 2027년 공급 물량에 대해 현 시점에 대규모 장기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AI 서버향 고부가 MLCC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객사의 중장기 MLCC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MLCC가 AI 서버 내 핵심 부품으로 거듭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AI 서버에 탑재되는 초소형·고용량 MLCC는 높은 기술 난이도로 인해 삼성전기와 Murata가 과점하고 있는 영역으로 향후에도 후발 업체들의 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익성 MLCC 매출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후발 업체들의 고전압 MLCC 공급 확대로 글로벌 MLCC 생산능력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

FCBGA, 우호적 시장 환경 장기화 전망

FCBGA 또한 구조적 성장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향 가속기 및 서버 CPU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대면적화가 FCBGA의 대면적화, 고다층화로 이어지며 Capa Loss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판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급 증가분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탭티어 기판 업체들은 고객사 선수금 또한 선별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이트한 수급 환경으로 인해 서버 외에도 PC 및 전장용 FCBGA 평가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7월 1일 | 기업분석_Preview

BUY(유지)

목표주가(12M) 400,000원
현재주가(6.30) 1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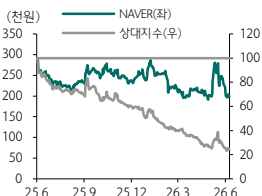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8,476.48
52주 최고/최저(원)	287,000/191,500
시가총액(십억원)	31,220.6
시가총액비중(%)	0.45
발행주식수(천주)	156,88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946.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66.2
외국인지분율(%)	34.92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9.33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700.4	15,248.4
영업이익(십억원)	2,418.9	2,793.8
순이익(십억원)	1,926.9	2,335.7
EPS(원)	12,346	14,778
BPS(원)	197,909	211,550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737.7	12,035.0	13,848.1	16,112.6
영업이익	1,979.3	2,208.1	2,392.7	2,868.0
세전이익	2,322.2	2,420.1	2,464.4	3,360.0
순이익	1,923.2	1,953.2	1,899.1	2,601.6
EPS	11,913	12,376	12,106	16,584
증감율	92.77	3.89	(2.18)	36.99
PER	16.70	19.59	16.44	12.00
PBR	1.20	1.35	0.98	0.92
EV/EBITDA	11.27	11.85	12.11	10.10
ROE	7.90	7.36	6.47	8.08
BPS	166,221	180,117	202,382	216,458
DPS	1,130	2,630	2,630	2,63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NAVER (035420)

평이한 실적, 결국 트리거는 신사업

2Q26 Pre: 영업이익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NAVER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3조 3,909억원(+16.3%YoY, +4.6%QoQ), 영업이익 5,555억원(+6.5%YoY, +2.5%QoQ, OPM 16.4%)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2분기 본업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다. 2분기 광고 매출은 1조 4,779억원(+9.8%YoY, +6.0%QoQ)으로 추정한다. 글로벌 생성형AI 서비스의 트래픽 침투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NAVER의 광고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 서비스 매출은 4,623억원(+33.4%YoY, +3.8%QoQ)을 예상한다. 4~5월까지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인상 기저 효과가 있었으며 6월에는 월드컵 시청을 위해 유입된 멤버십 사용자들이 거래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분기 영업비용은 2조 8,354억원(+18.5%YoY, +5.0%QoQ)로 추정한다. GPU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월드컵 중계료, 커머스항 마케팅비 증가를 반영했다.

하반기 AI 수익화 시작, 광고와 커머스 모두 기여 예상

2026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 13조 8,481억원(+15.1%YoY), 영업이익 2조 3,927억원(+8.4%YoY, OPM 17.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고 매출액은 5조 9,709억원(+9.8%YoY), 서비스 매출액은 1조 9,047억원(+24.6%YoY)으로 유의미한 추정치 변경은 없다. NAVER는 지난 6월 26일 AI 탭을 정식으로 출시, 전체 대상으로 사용자를 확대하고 검색창에 AI 탭 버튼을 배치했다. 멤버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베타서비스 기간 동안 AI 탭의 상품, 장소 카드 CTR은 20% 이상 높았으며 전반적인 트래픽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7월에는 AI 브리핑에 CPC 광고를 추가할 예정이며 4분기에는 AI 탭에도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커머스를 비롯한 로컬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한정 글로벌 Peer 대비 분명한 강점이다. AI 탭을 통한 광고 수익화와 동시에 국내 커머스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

신사업 구체화가 상승의 트리거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00,000원, 인터넷 산업 Top Pick 유지한다. NAVER는 12MF P/E 기준 14.7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네이버 파이낸셜-두나무 합병 발표,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통한 네오클라우드 사업 진출이라는 큰 변곡점을 맞았으나 기업 가치는 오히려 하락,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이는 과거 2020년~2022년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확대하던 시기의 시장 반응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건 증명이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의 경우 이미 공식화했지만 공정위 심사,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외재적 변수가 남았으며 연내 절차 진행을 예상한다. 네오클라우드 1단계 200MW의 고객사, 장기수주계약의 발표 시점은 3분기로 기대한다.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대비 수요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글로벌 고객의 확인으로 신사업이 구체화되는 동시에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7월 1일 | 산업분석_Update

Neutral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30일

한국전력(015760)

Neutral | TP 45,000원 | CP 37,200원

유틸리티

GW급 AI DC 구축의 긍정적 효과

경북, 충남, 강원은 단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한 권역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다. 반도체는 빠른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조기 확충, 피지컬 AI는 새만금-대경권 양대 성장축 조성, AI 데이터 센터는 울산, 동해, 세종 등 GW급 구축이 제시되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인프라 확보 필요 시간 관점에서 주요 과제 중 AI 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9년까지 8.4GW 규모 1단계 사업의 경우 주요 추진 예정 입지가 울산(SK, 1GW), 동해(GS, 2.4GW), 세종+α(네이버, 1GW)으로 언급되었고 SK가 중부권 1GW, 대경권 및 강원권 2GW, 호남권 1GW 추가 입지를 검토 중이다. 주요 행정구역별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경북, 전남, 충남, 강원 등이 자급률이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기저전원 중심 전력 Mix를 갖고 있는 경북(원자력 12.8GW), 충남(유연탄 17.7GW), 강원(유연탄 7.4GW) 등의 지역은 전력 공급 적시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력수요 증가로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 이용률 제고 기대

현재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이 진행 중이다. 동해안 소재 발전설비 용량은 약 18GW로 765kV와 345kV 선로의 송전가능 용량 11GW 대비 부족하다. 송전제약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발전설비는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특히 원자력 대비 급전순위가 낮은 민간 석탄발전 설비의 이용률은 2025년 기준 평균 30%를 하회했다. 현재 동해안-신가평 765kV 교류 송전 선로와 동해안-동서울 HVDC 500kV 직류 송전선로가 건설 중이나 오랜 기간 지연되어왔다. 2027년 6월 준공 목표이며 수도권 송전망 보강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과 연결되나 가동 시점 관점에서 반도체 산단보다 AI DC향 수요가 먼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동해 2.4GW, 대경권 및 강원권 2GW 전력수요로 송전제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의 이용률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AI DC 준공 시 한국전력 일반용 전력판매량 대폭 성장 가능

냉각, 공조 등 PUE를 고려한 AI DC의 평균 가동률을 70%로 가정하면 1GW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약 6.1TWh다. 강릉안인(2,080MW), 북평(1,190MW), 삼척(2,100MW)의 이용률 13%p 개선 시 1GW 규모 AI DC 전력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며 이용률 제고 여력이 충분하다. 한국전력은 발전 Mix 개선 및 일반용 전력판매량 증가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경북, 충남, 강원권 AI DC 용량을 5.4GW로 가정할 경우 일반용 전력판매량은 2025년 대비 24%, 전체 판매량은 6% 증가한다. AI 전용 요금제 출범 시 일반용 전기요금 대비 할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영향을 감안해도 충분히 긍정적인 사안이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2026년 6월 30일 | 글로벌 산업 코멘트

Global Issue

미국 우주 산업

로켓랩의 이리덤 인수, 우주 전략 자산의 가치 재평가

로켓랩, 위성통신 네트워크와 주파수 자산 확보로 수직통합 우주기업으로 확장

로켓랩(RKLB)은 6월 29일 이리덤(IRDM)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가는 약 80억 달러로 규제 승인이 되면 2027년 중반 완료 예정이다. 이리덤은 저궤도에서 위성망을 운영하며 음성, 데이터, IoT, 메시징과 PNT 등 다양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로켓랩의 전략적 목적은 발사와 위성 제조 회사를 넘어서 우주 기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진화다. 로켓랩은 소형 발사체 사업에서 출발해 위성 제조, 우주 시스템, 부품 공급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번 인수로 즉시 운용 가능한 저궤도 위성망과 가입자 기반, 파트너 생태계, 정부-상업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 이리덤이 운용 중인 위성 통신 네트워크와 주파수 자산을 더하면서, 발사체-위성제조-위성운용-통신 서비스를 포괄하는 수직 통합 우주기업으로 확장 할 수 있다는 점에 전략적 의미가 크다.

MSS 스펙트럼 자산과 D2D 전략적 가치 확인

이번 인수에서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포인트 중 하나는 이리덤의 MSS 주파수, 특히 L-band 자산이다. 스페이스X의 에코스타 주파수 인수,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MSS 스펙트럼 거래라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마존이 글로벌스타 인수를 발표했을 때 이리덤을 비롯한 다른 MSS 보유사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스타 거래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리덤 인수가 바로 발표됐다는 점은 D2D를 비롯한 우주 기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자산 확보 경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체 구축’에서 ‘인수’로, M&A 기대감과 전략자산으로서 재평가

미국 우주 산업 관점에서 이번 M&A 시사점은 크게 4가지다. 1) 사업 모델 패러다임이 발사, 제조, 서비스 등 단일 영역 사업자에서 수직 통합 모델로 진화, 2)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 M&A 통한 산업 재편 가속화, 3) 희소 스펙트럼, 운용 위성망 등 우주 자산의 전략적 가치 숫자로 확인, 4) D2D, 위성통신, 스펙트럼 테마 다시 강하게 부각이다. 미국 우주 섹터는 스페이스X 상장 전후 자금이동, 프록시 매수 논리 약화, 고밸류 부담 등으로 6월 들어 큰 조정을 겪었고 이번 이벤트가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우주 Pureplay 기업들이 대형 방산, 빅테크, 우주 플랫폼 기업의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전략 자산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으나 주파수, 운영 위성망, 고객기반 반복 매출 보유 여부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 종목군의 높은 변동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 수혜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은 D2D 사업자인 AST스페이스모바일(ASTS), 위성망 기반 서비스 사업자 플래닛랩스(PL), 블랙스카이(BKSY), 위성통신·MSS 자산 재평가 관점의 Viasat(VSAT) 등이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026년 6월 30일 | Global Equity

중국

Top Picks 및 관심종목

CATL(300750.CH)

TP 579.20 CNY | CP 393.55 CNY

*CP 2026년 6월 29일

중국 이차전지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업화의 시작

CATL과 BYD가 주도 중인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

최근 중국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및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CATL은 2025년 4월 전기차용 나트륨이온 배터리 브랜드 'Naxtra'를 출시했으며, 올해 1~2만 대의 전기차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같은 달 ESS 전문기업 HyperStrong과 3년간 총 60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실증을 완료한 나트륨이온 ESS 'TENER Sodium'을 공개했다. TENER Sodium은 올해 9월 중국에서 첫 출하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누적 1GWh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출하는 2027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YD는 ESS를 중심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BYD는 2025년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장쑤성 쉬저우시에 30GWh 규모의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고 향후 생산 능력이 50GWh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 산업에 활발히 사용될 나트륨이온 배터리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최대 성장 시장은 ESS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긴 사이클 수명과 높은 안전성, 우수한 저온 성능, 높은 출력 특성이 중요한 분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초기 상업화는 ESS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저가형 전기차, 자동차 시동 배터리, 전동이륜차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업계는 2030년 글로벌 나트륨이온 배터리 설치 수요가 약 406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0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시장 침투율은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계점은 에너지 밀도와 일부 핵심 소재 공급망

단기간 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큰 제약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낮은 에너지 밀도이며, 하드카본 음극재와 프러시안블루 양극재 등 핵심 소재 공급망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리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용 분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2026년 7월 1일 | Global Equity

머스크 (MAERSKB.DC)

2026년 가이드런스 상향: 컨테이너선 실적 눈높이 높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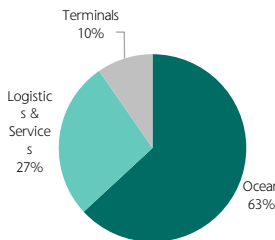
덴마크

TP(컨센서스) 13,534 DKK
CP(03.02) 15,895 DKK

Key Data

국가	DENMARK		
상장거래소	Copenhagen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해상 운송		
홈페이지	www.maersk.com		
시가총액(십억USD)	228.8		
시가총액(조원)	54.1		
52주최고/최저()	18865/11620		
주요주주 지분율(%)			
AP & CHASTINE MOLLER FOUND	30.34		
AP 밀러 - 머스크	11.96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0.5	8.8	35.0
상대	(0.6)	9.8	29.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55,482	53,988	54,783	52,766
영업이익	6,198	3,070	1,314	(430)
순이익	6,109	2,725	1,166	(796)
EPS(USD)	386.1	175.2	77.2	(68.8)
EPS(YOY, %)	64.0	(54.6)	(56.0)	(189.2)
ROE(%)	11.0	4.8	1.8	(1.6)
PER(배)	4.3	12.9	31.4	
PBR(배)	0.5	0.6	0.6	0.7
배당률(%)	9.3	3.3	2.0	1.4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글로벌 No. 2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글로벌 2위의 컨테이너 선사로 보유하고 있는 선박량은 약 473만 TEU,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점유율 14%에 달한다. 머스크는 글로벌 5위 하판로이드와 제미니이 얼라이언스(MS 약 21%)를 구성하고 있다. 머스크는 크게 해운/물류/터미널 3가지의 사업을 영위 중인데, 매출 중 60% 이상이 컨테이너선 사업부에서 발생 중이다. 컨테이너선 사업은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나, 물류/터미널 사업부가 이익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터미널 사업부가 머스크의 Cash Cow가 될 예정이다. 터미널 사업부의 2025년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하나, 이익 비중은 45%에 달하며, 향후 컨테이너선대 증가에 따른 터미널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익이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란 전쟁 이후 SCFI 급등, 3,200pt 돌파

이란 전쟁 이후 SCFI의 오름세가 가팔랐다. 2026년 1분기 평균 SCFI는 1,507pt에 불과했는데 2분기 말에는 3,239pt를 기록하며 전쟁 이전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전쟁으로 인해 재고 축적 수요가 촉발되었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 물동량 전반이 예상 대비 성장률이 좋았다. 기본적으로 희망봉 우회가 컨테이너선 시장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상 운임의 상방과 하방을 열어두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2026년 가이드런스 상향: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실적 눈높이 제고 필요

머스크는 2026년 가이드런스를 상향하여 제시했는데, 전쟁 이후 상승한 운임 지수를 반영했다. 기존 조정 EBITDA 전망치를 기존 \$45억~70억에서 \$80억~100억으로 상향했고, EBIT도 \$20억~40억(기존 -\$15억~10억)으로 큰 폭 상향했다. 또한 2026년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4% 성장(기존 +2~4%)으로 전망 중이다. 올해 컨테이너 선박량은 약 5% 증가 예정임에 따라 현재는 수급이 균형이 맞고, 중동 분쟁과 희망봉 우회가 지속적으로 강세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 뿐만 아니라 HMM을 비롯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 눈높이가 제고될 필요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2027년으로 넘어가면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박량 증가율이 8% (YoY)로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7,930	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200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4,645	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620	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31.98	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71.94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31.5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8.80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29	339,500	334,000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6/29	2,673,000	2,650,000	-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6/29	149,300	159,000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에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오션 (042660.KS)	6/29	98,000	100,300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가 수주물량 해소와 고가 선박 매출 인식 본격화로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캐나다 CPSP-국내 KDDX 등 특수선 수주와 해양플랜트 발주 확대 기대감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1,119,000	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대덕전자 (353200.KS)	6/29	133,200	153,600	15.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용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세방전지 (004490.KS)	6/29	49,250	51,600	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를 통한 북미 전력망용 ESS 모듈/팩 사업 진출 P/E 6배 수준의 저평가와 현재 주가 기준 4% 후반의 배당수익률 매력 부각
리가캠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149,900	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파마리서치 (214450.KQ)	6/29	324,000	363,000	1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세프라-중국 오프라인 채널 확대, 유럽 중등 의료기기 진출로 성장 모멘텀 부각 리뷰란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내수 의료기기 수요 견조
코스메카코리아 (241710.KQ)	6/29	66,100	69,000	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성장 지속으로 화장품 ODM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 잉글우드랩 지분을 확대에 따른 연결·지배순이익 개선 효과로 실적 가시성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06%	+4.28%p	+79.28%	+1.5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	334,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7/1	2,650,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220.KS)	7/1	2,184,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공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생명 (032830.KS)	7/1	401,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효성중공업 (298040.KS)	7/1	3,43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신세계 (004170.KS)	7/1	755,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날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리가켄바이오 (141080.KQ)	7/1	149,9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브이엠 (089970.KQ)	7/1	109,3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M15x 신규 투자와 1c나노 전환 투자 수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호실적 기대 2027년 M15x 잔여 공간-용인 1공장 투자 수혜까지 감안 시 중장기 실적 상향 여력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지난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3.81%	-22.28%p	+57.22%	-20.5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광공업생산 (-0.9%, 이전치 1.5%) 중국 6월 제조업 PMI (50.3, 이전치 50) 중국 6월 서비스업 PMI (50.2, 이전치 50.1) 일본 5월 실업률 (2.5%, 이전치 2.5%) 미국 6월 CB 소비자기대 (E 94.4, 이전치 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출 (E 60.9%, 이전치 53.2%) 한국 6월 수입 (E 24.5%, 이전치 20.8%) 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52, 이전치 51.8)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E 53.9, 이전치 54.0) 유로권 6월 CPI (E 3.0%, 이전치 3.2%) 유로권 6월 근원 CPI (E 2.5%,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CPI (E 3.2%, 이전치 3.1%) 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 유로권 5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3.1, 이전치 54.4) 	
7.5	7.6	7.7	7.7	7.8	7.9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이전치 51.3) 유로권 5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0%) 유로권 5월 PPI (E --, 이전치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수출 (E --, 이전치 2.6%) 미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1) 일본 5월 동행지수 (E --, 이전치 1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PPI (E --, 이전치 3.9%) 중국 6월 CPI (E --, 이전치 1.2%)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 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PPI (E --, 이전치 6.3%)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